

사계절 청정 관광지 화천

강 옥 자유기고가

강 원도 화천군(華川郡)은 우리나라의 여러 라 알 수 있는 중부지방 38도 선에 위치한 산간지역이다. 한편 금강산에서 발원하는 북한강이 중심을 흐르고 있는 아름다운 물의 고장이기도 하다. 화천군은 '동국여지승람'에 적힌 이지직의 시 구절대로 "구름이 가까워서 옷이 젖을" 만큼 높은 산이 많은 산악 지대이다. 땅의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진 이 고장은 한 해에 눈 오는 날이 한 달을 넘는다. 또한 겨울철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날이 적지 않다.

태백산맥의 머리끝인 금강산에서 서남쪽으로 뻗어 내린 광주산맥이 화천군을 거치면서 백산, 대성산, 백암산, 와악산, 적근산, 사명산 같은 천미터가 넘는 산을 열 개나 넘게 만들어 놓았다. 또한 내금강의 장안사 앞 골짜기에서 흘러온 물이 북한강의 상류 줄기를 이루며 화천군의 동북쪽 끝에서 서남쪽으로 흐른다. 임산물이 풍부하여 옛날에는 이곳 나무를 벌채하여 북한강을 따라 뗏목으로 옮겨 안양의 궁궐을 짓기도 하였다.

1960년대 이곳 사람들은 화전을 일구어 옥수수, 콩, 울무, 깨 같은 밭작식과 길경, 천궁, 왕기 같은 약초를 많이 재배하여 소득을 올리기도 하였다. 또한 산에서 숲을 굽거나 나무를 베어다 내다 팔아서 살림을 꾸리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와 나라에서 화전을 일구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는 바람에 화천민은 사라져 버렸다. 연재 화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서는 쌀, 콩,

팥, 옥수수가 주 작목이고 특이 가시오이, 애오박이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화천은 6.25 동란 이후에는 안때 군수산업의 영장으로 상업이 번창하기도 했으나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며 군세(郡勢)가 위축되어 갔다. 그러나 연재는 전예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사계절관광지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화천은 이제 순박한 인심 속에 등산, 수상스포츠, 낚시, 계곡야영 등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레저의 고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파로오는 화천 9경 중 제1경으로 꼽히는 명소로 유명한 낚시터이다. 1943년 남한 최대의 화천 수력발전소가 준공되면서 댐이 조성되고 오수가 생겼다. 원래는 대봉오라 불려지다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이 파로오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 1951년 5월, 우리 국군이 중공군 제10, 25, 27연대와 애병 1연대를 격전 끝에 화천저수지에 수장시켰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전선에 와 장병들을 격려하고 친필로 '파로오지(破虜湖池)'라고 써주었다. 이때 저수지 주변과 대이리, 풍산리 일대가 중공군의 시체로 뒤덮여 국군이 불도져로 시체를 밀어내면서 전진해야 할 만큼 전투가 치열했다.

쟁쟁의 자연 속에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파로오는 낚시터로서 뿐만 아니라 가족, 연인들의 드라이브 코스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구만리 파로오는 선착장이 있는 곳으로 시조시인 이태극 시비, 전시관, 발전소, 개떡다리 등 볼거리가 많다.

국내 제일의 뉴시터로 강태공들의 낙원인 파로오 에서는 붕어, 잉어, 메기, 쏘가리, 빙어 등 각종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다. 또한 뉴시터 인근에 산재한 음식점에서 외딴밥, 쏘가리매운탕, 양어찜, 붕어찜, 달팽이 애장국, 어죽탕 등 지역 특색 별미를 맛볼 수 있다.

와천 9경의 하나로 꼽히는 와악산은 와천군 사내면과 경기도 가평군 북면의 경계에 위치한 명산으로 수많은 등산객들이 찾는다. 1,468m의 높이로 38선을 가로 지르는 와악산은 6.25때 치열한 전투를 치른 격전의 연장이기도 하다.

등산 코스는 사내면 삼일리에서 출발하여 법장사 및 와음동정사지 등을 둘러보고 쫓대바위를 따라 내려오다 다시 와악터널을 지나 와악산 정상에 오르게 된다. 등산로 주변에는 와음동계곡, 삼일계곡, 곡운계곡 등이 수려한 풍광을 자랑한다.

삼일리에 있는 와음동정사는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 곡운 김수증 선생이 은거하며 후학들을 가르치던 곳이다. 강원도 기념물 제63호로 지정된 와음동정사 유적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구체적인 행동양식과 외형적인 모습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유적은 와음계곡의 용달천 지류 약 40m 반경을 중심으로 누각, 정자, 서계 등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나 이곳에 도로가 나서 정사 일대가 많이 침식되었다.

조선조 조영예술의 색다른 미를 보여주는 이 유적은 인정사터, 바위, 죽대, 계곡, 경계석 등의 명칭과 바위에 새겨진 글들이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다. 이곳은 김시습, 정약용, 송시열 선생 등 당대의 석학들도 다녀갔던 곳으로 길이 13m, 너비 11m의 자연 그대로의 바위에는 태극도가 암각되어 있다.

와천군 간동면 평와의 댐 DMZ 전방지역 백암산의 안 중턱은 가곡 '비목'의 발상지로 유명해진 곳이다. 6.25때 이름 모를 아까운 젊은들이 산와안 이곳에서 국민가곡 '비목'이 탄생했는데 여기에는 애뜻한 사연이 있다.

196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와의

댐 북방 14km 백암산 계곡 비무장지대에 배속된 안 장교는 잡초가 우거진 곳에서 돌무덤 하나를 발견한다. 녹슨 철편, 이끼 덮인 돌무덤 주위로 겨냥노을은 깊게 물들어가고 그는 돌무덤의 주인공을 그리며 깊은 상념에 젖는다. 소국을 위해 산와안 젊은이의 넋을 가리는 '비목'의 가사는 이렇게 탄생되었고 이 노래는 가곡으로 널리 애창되었다. 그 가사를 쓴 소급장교가 바로 안영익씨이다.

이곳은 이제 비목공원이 조성되어 전우의 넋을 기리며 통일 의지를 다지는 안보 관광지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주차장 입구에는 '비목' 노래비가 서 있으며 매마다 6월 6일을 전후에 '비목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관광객들은 비목공원과 함께 파로오, 와천댐, 와천수력발전소를 연계해서 함께 둘러볼 수 있다.

북안강 상류에 위치한 와천은 오염되지 않은 청정 자연으로 1급수의 아천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맑고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하는 산천어가 살고 있다. 청정어족인 산천어는 연어목 연어과로서 냉수성 토종 민물고기이다. 또한 등에 나타나 있는 무늬가 눈부시게 아름다워 '계곡의 여왕'이라고 불린다.

익귀어종인 산천어는 살이 단단하여 안점 입에 넣으면 쫄쫄하다. 민물외 중에서 고급 어족으로 꼽히는 산천어회는 얇은 분홍색과 노란색을 띄우며 부드럽게 씹어 넘기면 달콤한 뒷맛이 난다. 산천어는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신선이 먹었다고 하며 일본에서는 노약자의 약재로서 손꼽히고 있다.

얼음나라 와천에서는 매년 1월경 와천천에서 '와천 산천어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축제 기간 중 와천에는 산천어 이색 체험을 만끽하기 위해 전국에서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다. 이 축제에서는 오직 와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산천어 얼음낚시'를 비롯해 썰매 콘테스트, 얼음나라 열차, 얼음 축구, 산천어 맨손잡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